

칼럼

건설 근로자에게 보내는 늦여름 편지



이진규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

지난해는 무더히도 찌더니만 올 여름은 다행히 그리 덥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농사짓는 분들에게는 죄송한 얘기지만, 비도 많이 오지 않았습니다. “삼복더위도 좋으니 제발 비나 오지 말고, 일거리만 많았으면 좋겠다”는 뉘두리를 주문처럼 외던 장면이 눈에 선합니다. 남들처럼 피서 간다고 설레어서 들뜬 적은 없지만, “일감 있으니 나와 달라”는 전화 한 통화에는 가슴이 벅차오르는 기쁨을 맛보았다는 그 말씀에 가슴이 찡합니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 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누가 이 일 하고 싶어서 하는가. 배운 게 없고 돈이 없으니까 그저 몸뚱아리 하나로 벌어먹기 위해 하지”라는 말씀에는 할 말을 잊었습니다. 한때 중동에 나가 달러를 벌어들일 때는 그래도 똥 폼 찰 때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식들마저도 건설 근로자인 부모 직업을 속여야 하는 세태에 대해 여간 섭섭하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뿐만 아닙니다. 나이 좀 먹었다고, 혈압 좀 높다고, 전문 기술이 없다고 이런저런 괘시를 받으면서 일터에서 되돌아온 날이 하루이틀이 아닐 것입니다. 게다가 요즘에는 점점 줄어드는 일자리마저 외국인들에게 빼앗기는 서글픔으로 술과 담배가 더 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것 다 참을 수 있는데 일한 돈이나 떼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피를 토하듯 하소연하는 모습은 차마 보기가 힘들어 두 눈을 감고 들어야 했습니다.

이제 가을이 시작됩니다. 가을은 결실의 계절, 그리고 풍요의 계절이라 많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런데 건설 근로자 여러분들은 이 가을을 반기기 보다는 가을이 지나면 들이닥칠 살을 에는 추위와 싸워야 할 걱정이 앞섭니다. 그 심정 십분 이해하고도 남습니다.

그러나 진정 이 가을을 만끽할 주인공은 바로 건설 근로자 여러분입니다. 무쇠라도 녹일 그 뜨거운 여름 햇볕을 이겨내야 가을의 결실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삼라만상의 진리가 아닙니까. 한여름 동안 온 몸은 땀으로 범벅이 되고 허연 소금기 어린 피부는 따가움을 넘어 고통스러웠지만, 여러분들은 다 참아내지 않았습니까.

이번 가을에는 ‘없고, 부족하고, 섭섭하고, 불안하고, 화가 나더라도’ 고단함을 잊고 여름의 승자가 갖는 웃음을 지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인생의 결실을 맺는 그 날도 오기 때문입니다. 부귀영화를 누리는 삶이 아니더라도 ‘소중한 작은 행복’을 소유하는 그 날 말입니다. 그 날까지 인고의 길을 걸어가는 건설 근로자 여러분을 위해 끝까지 함께하는 동행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CERIK